





보림꽃예술중앙회장 지연 스님의 '여정(旅程)' 일부. 왼쪽부터 '출가' '향화' '탑 그늘 아래'다. 스님의 작품은 화려함보다 절제미를 살려 관객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45년 꽃길 정진 '花禪不二'로 승화

〈화선불이〉

[현장] 제6회 보림꽃예술중앙회 꽃꽂이 전시회

검은 소 한 마리가 바위 사이로 뛰어 들어간다. 머리와 앞다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그 소를 잡기 위해 더벅머리 동자가 양손에 끈을 쥐고 쫓아간다. 동자 옆에는 마디초가 우뚝 솟아 있고, 노박넝굴이 한 아름이다. 발밑으로 라벤더와 소국이 풍성하다. 단순한 심우도(尋牛圖)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나뭇결에 그려진 심우도를 식물과 조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한 꽃꽂이다. 바로 보림꽃예술중앙회장 지연 스님의 동진출가 모습이다.

보림꽃예술중앙회(이하 보림회)의 제6회 전시회 '마음 머물다-화花 · 화畵 · 화話'가 10월 18~19일 서울 현대백화점 미아점 사파이어홀서 장장 7년 만에 열렸다. 보림회 창립 25주년과 회장 지연 스님의 꽃길 4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들과 (사)한국꽃꽂이협회 초대작가 등 불교 · 일반 꽃꽂이 작품 90여 점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지연 스님의 고희(古稀)에 맞춰 출가부터 수행정진해 현재에 이르는 일대기를 8부작으로 표현한 '여정(旅程)'이다. 앞서 소개한 작품이 바로 10세에 속세를 떠나는 '출가'다. 여정은 가사장삼과 호접란, 망개가 어우러진 '향화(25세)'를 거쳐, 기원사를 창건하는 '도(道) 그리고 화예(花藝)(35세)'로 이어진다. 이후 발우에 꼿꼿하게 선 스틸그라스로 수행의 공양을 표현한 '깨달음의 공양(40세)', 오색 국수가닥과 수양버들, 클레마티스로 꽃길이 만개함을 전하는 '화엄법계(51세)', 불교꽃꽂이 저변 확대 노력을 담은 '만행화(61세)', 긴 세월 끝에 이른 출가 60년, 꽃길 45년의 '진리의 향연(오늘날)'까지. 여백과 절제미로 선(禪)적인 감각을 이끌어내는 지연 스님의 표현력이 도드라진다.

특히 마지막 작품인 '탑 그늘 아래'는 압권이다. 소우주를 상징하는 속이 빈 나무둥치에 작은 소나무 한그루와 석탑이 좌우 조화를 이룬다. 그 사이로 고고하게 솟아오른 안시리움 하나. 바로 지연 스님이다. 스님은 이 작품을 통해 우주만물 속에서 불교를 만나 꽃공양으로 원 없이 회향하고자 하는 서원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전시회에는 제자들이 수개월 간 준비한 선화(禪花) 작품과 불교의식 장엄화, 기초부터 창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작품 등이 관람객을 맞았다. 지연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한 점도 없을 정도로 애정 어린 작품들이다.

전시회장에 방문한 (재)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45년이란 세월 동안 아무 것도 없던 불교꽃꽂이를 이처럼 키워낸 지연 스님의 원력이 대단하게 느껴진다"며 "꽃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맑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밭을 일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전시회는 작품 전시 외에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꽃꽂이 체험을 곁들여 행사의 질을 높였다. 기원사 합창단과 남성4중창 '육화림 솔리스트 앙상블', 황명주 피아니스트, 현악4중주 '플러스앙상블' 등 수준 높은 음악공연이 펼쳐졌으며, 명원문화재단의 궁중 전통다례 시연과 꽃다발 만들기가 진행됐다.

대전에서 온 방장록(61) 씨는 "평소 꽃꽂이 활동을 즐겨하는데 불교꽃꽂이는 처음 접했다. 일반 꽃꽂이와는 조금 달리 불교적인 느낌이 나서 새롭다. 눈길을 끄는 작품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가이자 관람객으로 참여한 박순희(55) 씨는 "신심이 기본 바탕이 될 때 가능한 작품들인 것 같다. 인위적이지 않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가들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록 전시기간은 1박2일이지만 꽃공양을 통한 포교가 사람들의 심성을 곱게 하고, 바쁜 삶의 쉼표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꽃 이용한 문화포교 한층 성장하길"

보림꽃예술중앙회장 지연 스님



"올해로 꽃에 입문한지 4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불교계의 꽃을 이용한 문화포교가 많이 성장한 만큼 후학들이 불교적 가치를 잘 담아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꽃꽂이 1세대이자 보림꽃예술중앙회장 지연 스님〈사진〉은 후학들에게 '꽃 문화포교'를 당부했다. 고희를 맞은 지도자의 간절함이 담긴 바람이다. 스님은 1957년 종남산 미타사서 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평생을 불교꽃꽂이에 바쳤다. 오랜 세월 동안 불교꽃꽂이 선봉에서 걸어온 지연 스님은 이제 한발 물러나 제자들을 도우며 여유를 찾을 계획이다.

"꽃꽂이 강의를 40여 년간 놓지 않고 해왔어요. 지금도 매주 수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올해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물론 꽃꽂이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구생들과 후학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될 불교꽃꽂이를 연구할 겁니다."

지연 스님은 연구활동과 더불어 불교꽃꽂이 저서 발간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불교꽃꽂이가 재가자들에 비해 출가자 관심이 저조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전에 비구니 강원을 돌아다니며 꽃꽂이 강의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관련 강의가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만큼 출가자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이겠죠. 육법공양의 하나인 꽃공양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불제자 모두 관심 갖길 기대합니다."

윤호섭 기자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오른쪽)이 보림회장 지연 스님 안내에 따라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불교꽃꽂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



보림회원들의 작품. 오른쪽 수월관음도와 어우러진 꽃꽂이가 눈길을 끈다.

/
불교 정화
/
10·27 법난
/
개혁종단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현장에서

/
IMF 구제금융 사태
/
위안부 할머니 문제
/
세계 빈곤

한국사와 세계사의 현장에서

조계종 출판사

(주)조계종출판사 문의
02-720-6107~9 www.jogyebook.com

송월주 사진집

太空

태공 송월주 대종사 사진집 간행위원회 엮음
국배판 변형 | 344쪽(양장, 컬러) | 가격 35,000원



송월주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

송월주 대종사 지음
4×6배판 변형 | 724쪽(양장) | 값 30,000원

"이 책은 송월주 스님이 출가 이후 절차탁마하며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수십 년 시민사회운동에 발 딛고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유했던 여러 인물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 왔던 스님이기에 책 속에 실린 이야기는 때론 조계종의 근현대사이며 또 때론 질곡과 영광을 함께했던 한국사이기도 하다."

- 회고록은 한국 현대 불교의 역사와 불교계 사회복지 역사와 다름없다. * 조선일보
- 월주 스님의 개인사는 조계종단의 개혁사와 맥을 같이한다. * 중앙일보
- "이판이 아니면 사판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사판을 하지 않으면 이판도 의미 없다." * 동아일보
- 월주 스님의 보리심은 국경을 넘었다. * 한겨레
- 월주 스님은 자신의 수행과 자비행을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표현한다. * 한국일보
- 불교가 세상을 등진 채 산중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 연합뉴스